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A Structural Analysis on School-Age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nd Its Related Variables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강의전담교수 이 희 은*

교 수 문 수 백**

Dept. of child studies, Catholic Univ. of Daegu

Instructor : Lee, Hi-Eun

Professor : Moon, Soo-Bac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different variables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601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siding in Pohang-City in Korea completed questionnaires about school adjustment, internal problem behavior, external problem behavior, family adaptability and family cohesion. A variance-covariance matrix of this sample was analyzed using AMOS 19.0, and the maximum likelihood minimization function. The goodness of fit was evaluated via SRMR, RMSEA with a 90% confidence interval, CFI, and TLI.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family adaptability, family cohesion, internal problem behavior and external problem behavior were all found to have a significant direct effect how the children adjusted to their school. Second, family adaptability, and family cohesion had a direct effect on internal problem behavior. Third, family cohesion had a direct effect on external problem behavior, but family adaptability had a substantial indirect effect on the children's external problem behavior that was mediated by their internal problem behavior. Fourth, internal problem behavior had a direct effect on external problem behavior.

▲주요어(Key Words) : 학교적응(school adjustment), 가족적응성(family adaptability), 가족응집성(family cohesion), 내재화 문제행동(internal problem behavior), 외현화 문제행동(external problem behavior)

I. 서론

오늘날 사회는 무한의 경쟁을 요구하며 빠르게 그 모습을 바꾸어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동 역시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초등학교는 가정으로부터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사회화 훈련을 시작하는 시기로, 아동이 학교생활에 얼마

나 잘 적응하느냐의 문제는 개인의 성장·발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학교적응은 계속적으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박은주, 2001). 학교는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공동체 생활경험을 통한 단체생활의 규칙을 익히고, 성취감과 협동심을 기르며, 바람직한 자아개념과 사회관, 가치관을 형성하고,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사회 환경에 빠르고 조화롭게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박미선, 2007).

학교적응은 다양한 측면에서 개념화 될 수 있는데, 곽수란(2006)은 학교적응에 대해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

* 주 저 자 : 이희은 (E-mail : cia1976@hanmail.net)

** 교신저자 : 문수백 (E-mail : iqmoon@hanmail.net)

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한편,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서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 하는 적극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였고, Ladd 등(1996)은 아동이 학교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참여하여 편안해 하고 성공하게 되는 정도라고 학생의 지각과 감정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문은식과 김충희(2002)는 학교 적응을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측면에서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만족시키고 조작하는 학생의 외현적, 내재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미라(2000)는 학생들이 학교의 총체적인 영향 속에서(학생, 교사, 학급생활 등의 관계)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교사 및 학생들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운 상태로 학교생활에 적응시키는 것을 말하며 더 나아가서는 학교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한 사회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아동들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행동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사회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기도 한다(안영복, 1984). 또한 초등학교 시기의 적응수준과 질은 중학교 이후의 적응을 예측해주는 중요한 변인이며,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하는가의 여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결정하고 이후 성인기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이정운·이경아, 2004; 정현희, 2003). 이렇듯 학교적응은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하나 모든 아동이 학교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학교생활 부적응에 관한 보고를 보면, 2009년 대구에서 중·고 학생 중 1천 966명이 학교를 중도탈락 하였으며, 이들의 중도탈락 사유 중 부적응 문제가 5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매일신문, 2010), 제주 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공개한 '2010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를 보면 초·중·고 학생 10명 중 1명은 학교생활에 싫증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일보, 2011). 이는 아동과 청소년의 상당수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많은 이해와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제까지 국내외에서 진행되어온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아동의 개인변인(성, 연령, 학업성적, 자아개념 등)과 환경변인(가족구조, 가족기능,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 양육태도, 어머니의 취업여부, 부모연령, 교육수준, 가정소득 등)이 학교적응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밝히려는 것들이었다(이정운·이경아, 2004). 인간은 환경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동일한 환경 하에서도 개인의 특성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환경 변인과 개인변인을 동시에 고려한 상호작용적 관계를 밝혀주는 지식이다(문수백, 2003). 그러므로 아동의 학교적

응을 설명하기 위해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과 환경변인(가족적응성, 가족응집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먼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인변인으로 우울, 공격성 등과 같은 아동의 문제행동이 있다(박성연·강지훈, 2005; 이정운·이경아, 2004). 아동이 지니고 있는 문제 행동은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특성으로,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령기 아동은 자신의 행동의 부적절성으로 인한 행동적,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 심각한 학교 부적응을 표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아동의 문제행동은 아동의 적응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된다. 문제행동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부모나 교사의 일상적인 지도 범위를 벗어나 어려움을 야기하는, 해당 연령에 기초한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이나 정상적인 적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백혜정·황혜정, 2006).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을 논의하는데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며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Achenbach(1991)의 아동행동평가척도를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과 홍강의(2001)가 번역하여 한국 아동·청소년에게 적용한 문제행동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Achenbach(1991)는 개인이 건전한 적응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보이게 된다고 하며, 아동기에 주로 나타나는 적응상의 문제를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내재화 문제행동이란 소극적이고 사회적으로 내재화되어 과잉 통제된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축된 행동, 신체 증상, 우울/불안 등을 포함하며, 외현화 문제행동이란 감정이나 행동의 적절한 억제가 결여되어 과소 통제된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격성과 비행 등의 증상을 포함한다.

지금까지의 문제행동과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울한 학생과 우울하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우울한 학생이 교사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이고, 학업에 대한 흥미나 의욕이 낮아 학업성적이 열등하며 교우관계로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박은조, 2001; 손희준, 1987; 조종현, 1980), 불안한 아동은 학교적응 중 학업성적이 낮고, 교사와의 관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교우관계도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강명희, 2000; 노숙영, 1998; 송미원, 1999).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위축행동과 교우관계, 교사관계, 성적 등 학교생활간의 부적 관계가 보고되었으며(육경희 등, 2002), 공격행동, 비행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노숙영, 1997).

다음으로 아동의 학교적응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환경 변인은 가족기능을 들 수 있다. Olson 등(1983)은 가족체계 이론에서 가족의 기능을 측정하기 위한 주요 개념으로 가족적응성(family adaptability), 가족응집성(family cohesion)으로 제시하였는데, 가족적응성은 가족의 변화를 허용하고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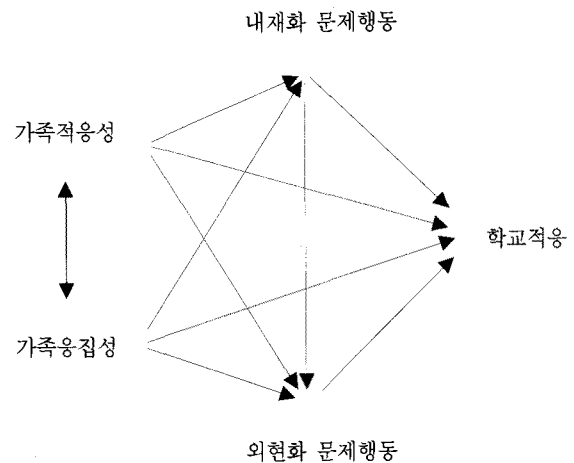
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가족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압력 등에 대하여 가족의 규칙과 역할, 가족의 구조 등을 유연하게 만드는 능력을 의미하며, 가족 응집성은 가족원들 사이의 정서적 결합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족원들이 서로에게 의지하고 함께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김미희(1997)는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이 높은 아동이 학교적응을 잘 한다고 보고하였고, 특히 가족기능 중 가족응집성은 학업효능감 및 학업동기 전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문은식·김중희, 2002), 궁극적으로 학교적응과 정적인 상관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들(구자은, 2000; 김연순, 2001; 민하영·권기남, 2004; 전귀연·최보가, 1995; 차유림, 2001; 최지은·신용주, 2003)에서 가족의 기능이 긍정적일수록 학교적응 또한 높다는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가족적응성 그리고 가족응집성은 각 요인이 개별적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과 동시에 이들 요인들 간에도 상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아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환경변인 중 하나인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하여 학교적응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장신재·양혜원, 2007). 윤찬정(1994)에 따르면 가족이 기능을 잘 할수록 각 개인의 인성 특성이 비교적 더 활동적이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사회성이 풍부하며, 성취지향적일뿐 아니라 신경증적, 정신장애적, 반사회적 경향이 낮았으며, 임용우(1984)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중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경험하는 집단의 가족은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이 낮은 극단형의 가족체계 유형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관한 전귀연과 최보가(1995)의 연구나 Handel(1965)의 연구를 살펴보면, 적응가족일수록 청소년은 불안과 우울을 더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가족기능성이 높을수록, 즉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하위요인 중 하나인 우울은 외현화 문제행동 하위요인 중의 하나인 공격성이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장신재·양혜원, 2007; 신현숙 등, 2004; 박금주·문은영, 1993; Craighead, 1991; Chiles et al., 1980). 아동기에 나타나는 외현화된 문제행동의 기저에는 가면성 우울(masked depression)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Chiles et al., 1980), 아동기와 청소년기 우울은 품행장애, 적대적 반항장애와 같은 파단적 문제행동과 공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보고되고 있다(Angold et al., 1999; Kovacs et al., 1988). 또한 불안 역시 외현화 문제 행동 중의 하나인 비행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박영희(2001)의 연구에 의하면 불안은 비행이나

흡연 등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장동산 등(1985)은 불안 수준만으로 비행여부를 변별하는 설명력이 66.4%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서는 불안과 우울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이 높아질수록 여러 가지 외현화 문제행동이 파생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내재화 문제행동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추정된다.

지금까지 학교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아동의 학교적응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결정하고, 훗날 청소년기나 성인기의 적응력을 높이는 데도 영향을 주며, 이후의 인간의 삶에도 꾸준히 영향을 줄 수 있음(성민선 등, 1998)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아동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던 가족기능, 문제행동과 학교적응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가족기능의 하위요인인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이 각각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행동의 하위요인인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이 각각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통제, 설명하기 위해 개인관련 변인으로는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을, 환경관련 변인으로는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을 관심변인으로 선정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이들 변인들 간의 구조관계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 <연구문제 1> 가족적응성, 가족응집성,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은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연구문제 2> 가족적응성, 가족응집성은 아동의 내재화 문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연구문제 3> 가족적응성, 가족응집성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연구문제 4>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가족적응성, 가족응집성,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학교적응의 원인변인으로 설정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직접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포항시 G초등학교와 P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남·여 아동 60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자기보고법(질문지)으로 수집하였다.

2. 측정도구

1) 학교적응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적응 척도는 이규미와 김명식(2008)의 '중학생의 학교적응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화 연구'에서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척도를 본 연구자가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학교적응 척도의 하위요인으로는 학교공부 8문항, 학교친구 10문항, 학교교사 10문항, 학교생활 10문항으로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공부는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식의 학업유능감과 '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식의 학업가치를 함께 평가한다. 학교친구는 '학교에는 나와 함께 놀아 줄 친구가 있다'와 같은 친구관계와 '나는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을 잘 도와주려고 노력한다.'와 같은 상호협조성을 같이 평가한다. 학교교사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대체로 편하고 친근하다'는 식의 교사에 대한 호감과 '우리 학교에서는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는 식의 교사 친밀감을 나타낸다. 학교생활은 '나는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와 같은 질서/규칙준수와 '나는 요즘 학교생활이 즐겁고 유쾌하다'와 같은 학교생활만족도를 의미한다. 본 척도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5점)'에 이르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2$ 로 나타났다.

2) 가족적응성 및 응집성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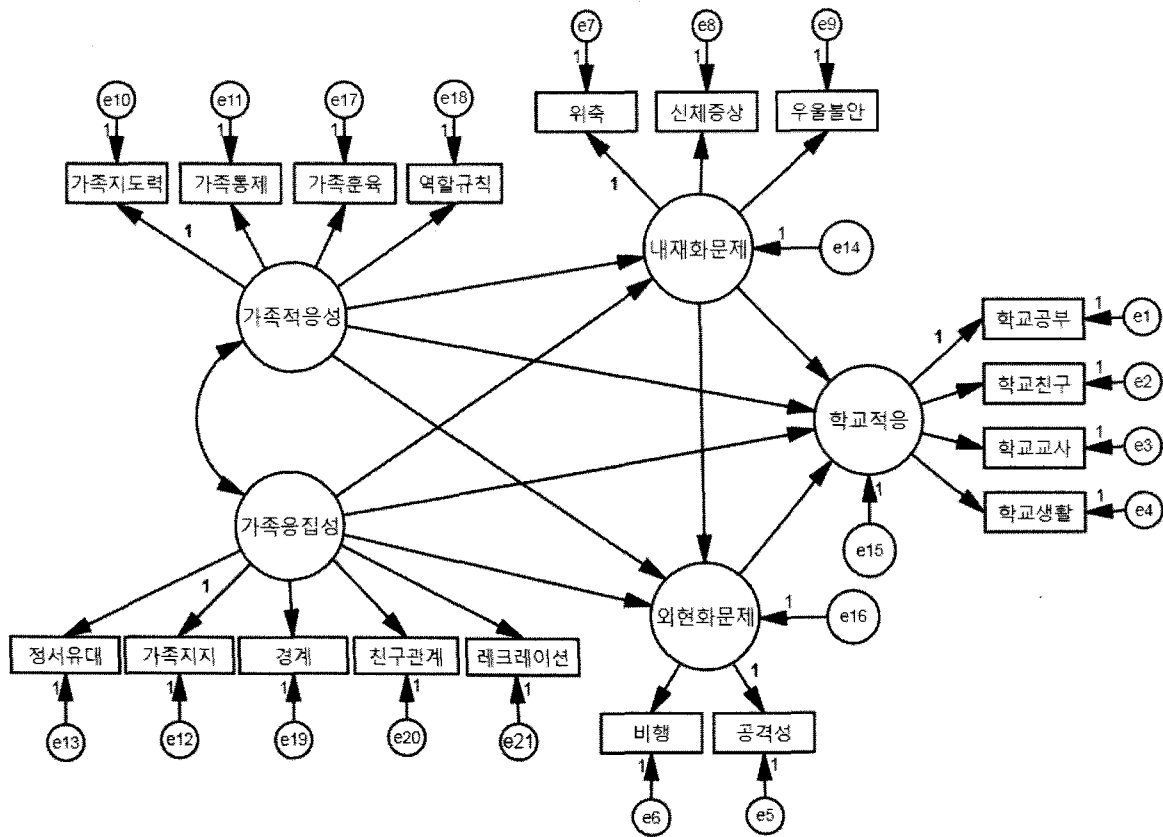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Olson 등(1985)이 가족적응성 및 응집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 FACES III(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cale III) 척도를 전귀연(1994)이 수정, 변안하고 김재호(2006)가 초등학생에 맞게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문항은 20문항으로 그 중 가족적응성을 평가하는 것은 짝수문항 10개로 가족의 지도력, 통제, 훈육, 역할 및 규칙에 대한 네 가지 구체적인 영역으로 측정된다. 가족응집성을 평가하는 것은 홀수 문항 10개로, 가족의 정서적 유대, 가족 의지, 가족원간의 경계, 가족공동시간과 친구관계 그리고 가족의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관심 등 다섯 가지 구체적인 영역에 의해 측정된다. 본 척도는 자기 보고식 질문지이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 가족적응성 및 가족응집성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각각 .85, .78로 나타났다.

3)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척도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orean Youth Self-Report: K-YSR) (오경자 등, 2001)의 내재화 문제행동척도와 외현화 문제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K-YSR은 Achenbach(1991)가 개발한 Youth Self-Report를 오경자 등(2001)이 한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K-YSR은 사회능력 척도와 문제행동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에 해당하는 6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내재화 문제행동 척도는 위축 7문항, 신체증상 10문항, 우울/불안 16문항으로 총 33문항이며, 외현화 문제행동척도는 비행 11문항, 공격성 19문항으로 총 30문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51번 문항(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은 위축척도와 우울/불안 척도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합산시 한 번 빼주어서 산출해야 하므로 총 문항은 62문항이다. 본 척도는 개발 당시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5점)'에 이르는 5점 Likert 척도로 수정하여 구성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영역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재화 문제행동 및 외현화 문제행동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각각 .94, .91로 나타났다.

3. 통계모형 및 자료 분석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의 원인변인으로 선정한 아동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간의



<그림 2> 통계적 연구모델

직접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그림 1>의 연구모델을 <그림 2>와 같은 통계적 검증모델로 설정하였다.

학교적응의 경우 하위척도인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을 지표변수로 선정하였고, 내재화 문제행동은 하위척도인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을 지표변수로, 외현화 문제행동척도는 비행, 공격성을 지표변수로 선정하였다. 가족적응성은 하위척도인 가족의 지도력, 통제, 훈육, 역할 및 규칙을 지표변수로 선정하였고, 가족적응성은 가족의 정서적 유대, 가족의지지, 가족원간의 경계, 가족공동시간과 친구관계 그리고 가족의 레크레이션에 대한 관심의 다섯 가지 하위척도를 지표변수로 선정하였다. 통계적 모델의 추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AMOS 19.0의 다변인정규분포성 검증 절차를 통해 구조방정식모델하의 18개 측정변수들에 대한 다변인정규분포성을 검증한 결과, 단변인 별 왜도 첨도 모두에 있어 정규분포의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ML: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절차를 적용하여 모델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모델부합도는 부합도 지수 χ^2 값, RMSEA, SRMR, CFI, NNFI를 통해 평가하였으며, 추정된 모델의 각 경로계수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결 과

1. 측정변인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 통계치

통계적 모델하의 측정변인들간의 상관행렬 및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추정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2. 측정모델의 부합도 추정결과

연구모델인 구조방정식모델의 모델추정 가능성과 부합도를 검증하기 전에 2단계 모델추정가능성 확인절차(Kline, 2011; 문수백, 2009)에 따라 최대우도 추정법에 의한 측정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하였다.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든 부합도 지수 평가에서 측정모델의 RMSEA(.06~.08)를 비롯한 모든 부합도 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잠재변인과 지표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모든 잠재변수에 있어서 지표변수들의 표준화 회귀계수인 요인부하량이 평균 .50 이상의 높은 부하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 1> 측정변인간의 상관행렬표 및 사례수, 표준편차, 왜도, 첨도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1.00																		
학교	2	0.41	1.00																
적응	3	0.48	0.36	1.00															
	4	0.59	0.53	0.44	1.00														
	5	-0.35	-0.55	-0.28	-0.41	1.00													
내재화	6	-0.22	-0.26	-0.16	-0.23	0.56	1.00												
	7	-0.33	-0.48	-0.24	-0.41	0.81	0.59	1.00											
외현화	8	-0.34	-0.33	-0.25	-0.49	0.47	0.41	0.43	1.00										
	9	-0.30	-0.27	-0.24	-0.45	0.55	0.47	0.48	0.70	1.00									
	19	0.34	0.34	0.29	0.40	-0.37	-0.24	-0.32	-0.33	-0.31	1.00								
가족	11	0.38	0.31	0.28	0.43	-0.26	-0.21	-0.21	-0.28	-0.26	0.59	1.00							
응집성	12	0.12	0.16	0.16	0.22	-0.16	-0.08	-0.14	-0.28	-0.28	0.45	0.37	1.00						
	13	0.36	0.34	0.28	0.42	-0.35	-0.28	-0.29	-0.30	-0.30	0.62	0.57	0.48	1.00					
	14	0.34	0.29	0.31	0.39	-0.33	-0.24	-0.26	-0.29	-0.28	0.56	0.54	0.36	0.59	1.00				
	15	0.28	0.23	0.20	0.26	-0.34	-0.27	-0.25	-0.24	-0.20	0.35	0.39	0.31	0.43	0.36	1.00			
가족	16	0.36	0.32	0.26	0.37	-0.31	-0.25	-0.27	-0.30	-0.24	0.37	0.35	0.35	0.42	0.44	0.44	1.00		
적응성	17	0.25	0.28	0.25	0.32	-0.34	-0.29	-0.28	-0.27	-0.12	0.34	0.41	0.38	0.40	0.39	0.40	0.56	1.00	
	18	0.34	0.23	0.25	0.38	-0.29	-0.26	-0.30	-0.25	-0.27	0.40	0.38	0.41	0.41	0.41	0.51	0.52	0.49	1.00
사례수	601	601	601	601	601	601	601	601	601	601	601	601	601	601	601	601	601	601	601
평균	30.93	40.30	35.94	38.77	13.72	19.75	33.02	19.44	42.40	8.06	7.67	7.11	7.69	7.29	7.03	7.88	6.82	14.24	
표준편차	3.74	4.92	6.71	5.04	5.00	7.15	9.89	5.11	10.97	1.47	1.48	1.61	1.51	1.61	1.58	1.63	1.52	2.37	
왜도	0.05	-0.54	-0.15	0.08	0.72	0.47	0.33	0.70	0.19	-0.50	-0.32	0.05	-0.18	-0.28	-0.13	-0.56	0.02	0.32	
첨도	-0.13	0.29	0.12	-0.14	0.30	-0.89	-0.39	0.33	-0.28	0.03	-0.27	0.15	-0.48	0.03	0.18	0.19	0.05	-0.05	

1:학교공부 2:학교 친구 3:학교교사 4:학교생활 5:위축 6:신체증상 7:우울불안 8:비행 9:공격성 10:정서유대 11:가족지지 12:경제 13:친구관계 14:레크레이션 15:가족지도력 16:가족통제 17:가족훈육 18:역할규칙

<표 2> 측정모델 부합도 지수

모델	NPAR	DF	CMIN	NC	TLI	SRMR	CFI	RMSEA(.07)	
								LO90	HI90
측정모델	46	125	536.08	4.28	.90	.04	.92	.06	.08

이론변수들 간의 상호상관 정도를 검토한 결과, -.40~.74 범위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모델하의 각 이론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된지표변수들이 충분한 수렴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이론변수들 간에도 충분한 변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모델에 대한 어떤 수정도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델하의 모든 이론변수들이 측정모델을 통해 통계적으로 정확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측정된 이론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설정한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3. 초기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추정결과

통계적 모델을 구성하는 측정모델의 부합도 지수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구조회귀모델의 모델추정가능성이 이론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방법을 통해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 <표 3>과 같이 모든 부합도 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모델이 자료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연구모델하의 모수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 연구모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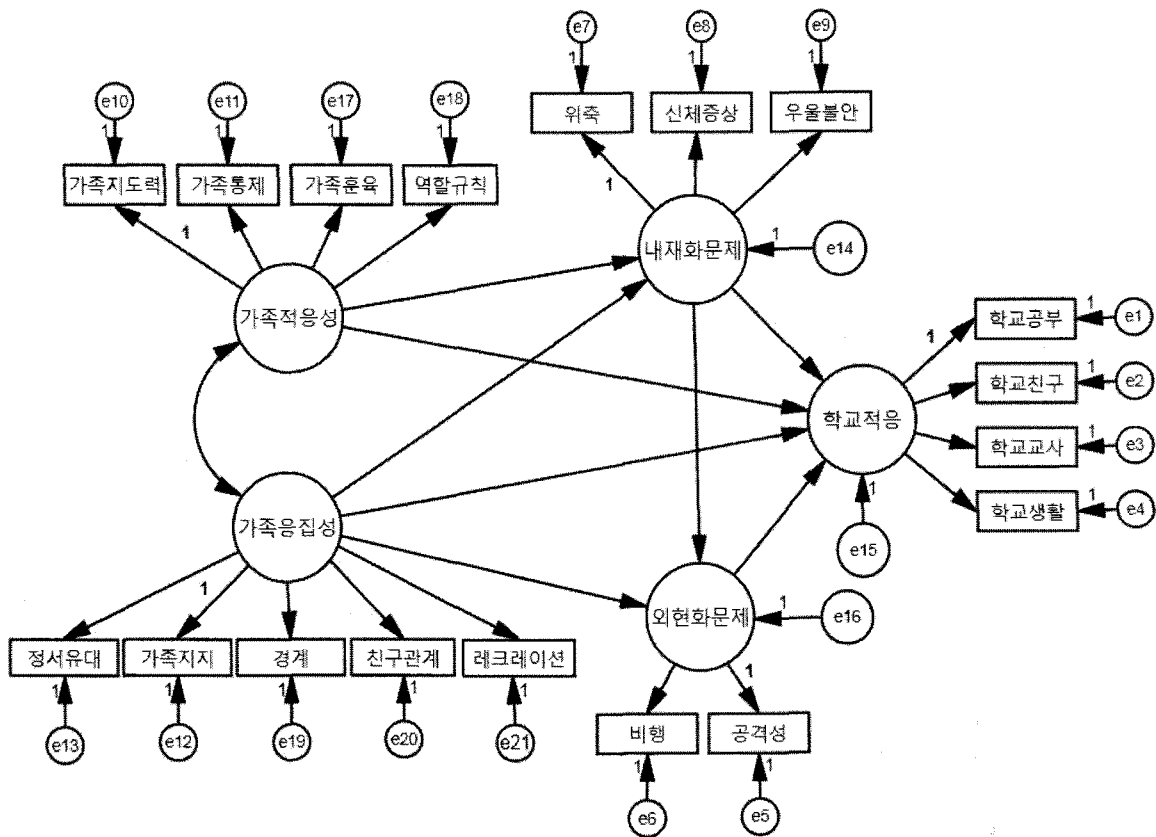
<표 3> 연구 구조회귀모델의 적합도 지수

모델	NPAR	DF	CMIN	NC	TLI	SRMR	CFI	RMSEA(.07)	
								LO90	HI90
연구모델	46	125	536.08	4.28	.90	.04	.92	.06	.08

<표 4> 연구모델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직접효과	비표준화 계수	S.E	C.R	p	표준화 계수
내재화문제 → 학교적응	-.12	.04	-3.6	*	-.22
외현화문제 → 학교적응	-.07	.02	-3.88	*	-.25
가족적응성 → 학교적응	.46	.19	2.36	*	.17
가족응집성 → 학교적응	.73	.17	4.16	*	.30
가족적응성 → 내재화문제	-1.57	.36	-4.37	*	-.35
가족응집성 → 내재화문제	-.76	.32	-2.36	*	-.18
가족적응성 → 외현화문제	.96	.73	1.31	.19	.10
가족응집성 → 외현화문제	-2.51	.63	-3.97	*	-.29
내재화문제 → 외현화문제	1.22	.11	11.43	*	.59

*p<.05



<그림 3> 수정된 연구모델

구조회귀모델의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다른 변인들 간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지만 가족적응성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 경로를 삭제시킨

간명한 모델을 <그림 3>과 같이 수정하여 설정하였다.

초기모델과 수정된 모델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1.78$, $p=.18$ 으로서 부합도에 있어서 수정모델과 초기모델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수정된 연구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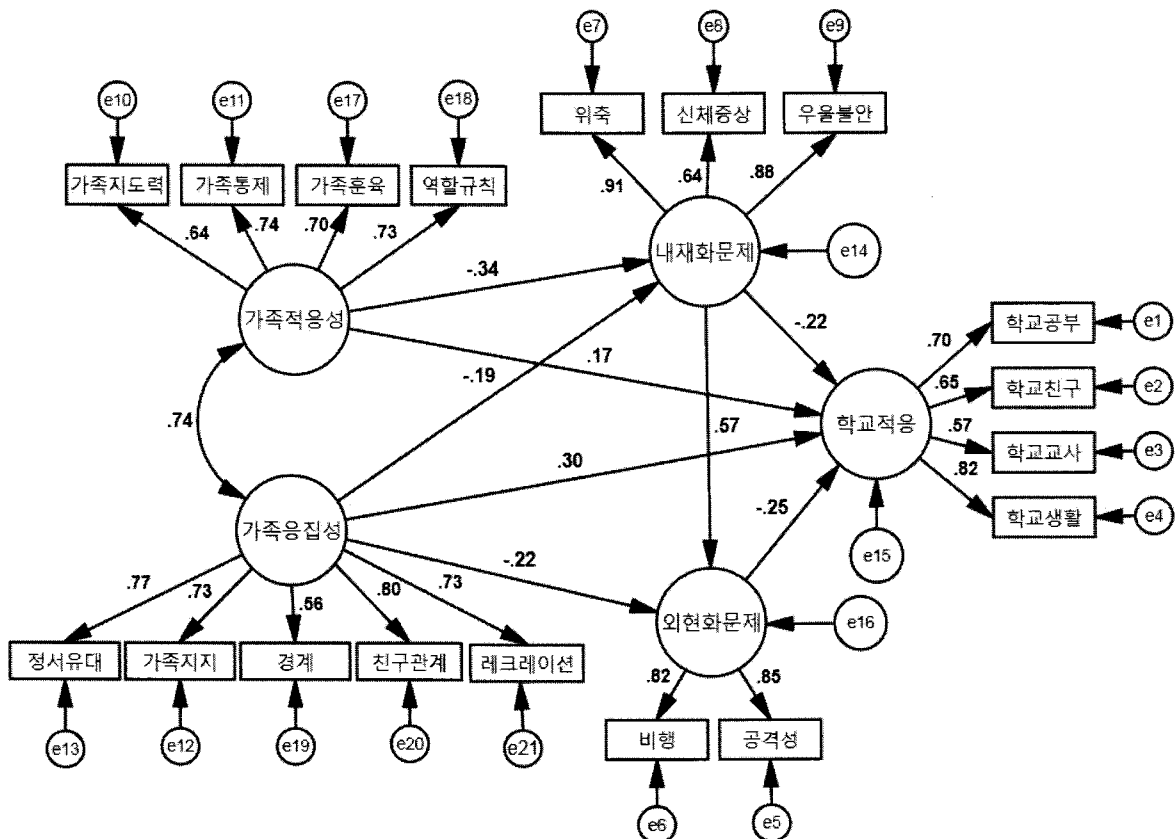
수정모델이 초기모델과 비교하여 부합도 정도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보다 간명한 모델이므로 수정모델을 최종연구 모델로 선택한 다음 부합도를 다시 추정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모델의 부합도 지수는 초기모델과 비슷하였고 Chi-Square(CMIN)값만 1.78만큼 높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할 만큼의 부합도가 나빠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연구모델의 모든 부합도지수가 부합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수정된 연구모델의 모수치를 추정한 결과 <그림 4>와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족적응성→외현화문제의 경로계수를 제외한 모든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적응성과 응집성,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모두 내재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 가족응집성만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적응성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내재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표 5> 수정된 연구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지수

모델	NPAR	DF	CMIN	NC	TLI	SRMR	CFI	RMSEA(.07)	
								LO90	HI90
수정모델	45	126	537.86	4.26	.90	.04	.92	.06	.80
초기모델	46	125	536.08	4.28	.90	.04	.92	.06	.08



<그림 4> 수정모델의 모수치 추정결과

<표 6>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잠재변인간의 직·간접 효과 분해표

변인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내재화문제 → 학교적응	-.36	-.22*	-.14*
외현화문제 → 학교적응	-.25	-.25*	-
가족적응성 → 학교적응	.29	.17*	.12*
가족응집성 → 학교적응	.42	.30*	.12*
가족적응성 → 내재화문제	-.34	-.34*	-
가족응집성 → 내재화문제	-.19	-.19*	-
가족적응성 → 외현화문제	-.19	-	-.19*
가족응집성 → 외현화문제	-.32	-.22*	-.11*
내재화문제 → 외현화문제	.57	.57*	-

*p<.0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을 결과변인으로 하고, 원인변인으로는 내재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 가족적응성 그리고 가족응집성을 선정하여 변인간의 직접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여 측정모델과 구조모델로 나누어 모델의 부합여부와 경로계수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모형의 경로계수를 산출한 결과, 가족적응성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나머지 경로들은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구찰을 통해 세운 연구 가설에 비추어 아래와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가족적응성, 가족응집성, 내재화 문제행동 그리고 외현화 문제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경험적 자료를 통해 통계적 검증을 한 결과 직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이 낮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이 긍정적일수록 학교적응 또한 높다는 선행연구들(고경은, 2002; 구자은, 2000; 김연순, 2001; 민하영·권기남, 2004; 전귀연·최보가, 1995; 차유림, 2001; 최지은·신용주, 2003)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기능적인 가족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가족의 정서적

결속 정도가 높고 가족이 구조적이고 융통적이며 가족전체가 건강하게 기능하는 가정의 아동일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아동의 학교적응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학생상담 및 지도가 아동 개인중심에서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가족원의 참여로 변화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상담이 개인상담뿐만이 아니라 가족상담의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식의 개선과 프로그램의 개발을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낮은 수준의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아동의 정서적·정신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며(김주연, 1997),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아동일수록 학교 규칙을 위반하거나 학교행사에 잘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교우 관계, 교사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학교생활 전반에서 적응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김인경, 2010). 그러므로 낮은 수준의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을 보이는 아동이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아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문제행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우울/불안, 신체증상, 위축 등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공격성, 비행등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아동의 학교적응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위축행동과 교우관계, 교사관계, 성적 등 학교적응간의 부적 관계가 보고된 선행연구(김수미, 2000; 옥경희 등, 2002)들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 위축된 아동이 주변 환경과의 접촉에서 움츠러들어 다른 사람과 정서적 교류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교사나 친구들과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고립 당하거나 또래들로부터 수용받기가 어렵고 이는 학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불안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알아본 선행연구(강명희, 2000; 함중환, 1984)의 결과들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불안한 아동은 학업성적이 낮게 나타났으며, 교사와의 관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교우관계도 어려움을 가진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우울 역시 전반적인 학교적응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데, 우울한 학생과 우울하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우울한 학생이 교사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이며, 학업에 대한 흥미나 의욕이 낮아 학업성적이 열등하며 교우관계로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강명희, 2000; 노숙영, 1998; 손희준, 1987)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아동의 학교 부적응을 야기하는 외현화 문제행동은 공격성과 비행으로, 아동의 공격성은 교사관계, 학교수업 및 규칙의 학교생활 적응과 부적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고(이경남, 2006), 학교나 선생님에 대한 애착이 높을수록 비행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Herschi(1969)의 연구결과도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와 같이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이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적응 낮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아동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아동 개인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문제행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가족응집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외현화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 가족적응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가족체계 내에서 가족 구성원간의 정서적 지원으로써, 가족원간의 물리적 가까움은 물론 감정적, 정서적 가까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가족응집성이 학교적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보호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서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아동이 부모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와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가족적응성, 가족응집성과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간의 직접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경험적 자료를 통해 통계적 검증을 한 결과 직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해결방안이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과 같은 가족기능의 강화에 있음을 시사하며, 또한 가족기

능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우울증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가족응집성은 우울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Stewart et al., 1994), 김주연(1996)의 연구에서도 가족응집성이 아동의 우울, 불안, 신체증상 등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송연경(2003)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적응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이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전귀연과 최보가(1995)는 가족적응성과 응집성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행동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윤찬정(1994)의 가족이 기능을 잘 할수록 각 개인의 인성 특성이 비교적 더 활동적이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사회성이 풍부하며, 성취지향적일뿐 아니라 신경증적, 정신장애적, 반사회적 경향이 낮았다는 연구결과와 가족 기능이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과 관련이 있다는 임경희(1998)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결과로 비추어 볼 때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에 대한 이해를 그가 속한 가족의 기능에서 찾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가족의 취약성들을 보완하고 건전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가족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가족적응성, 가족응집성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에 직접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경험적 자료를 통해 통계적 검증한 한 결과 가족응집성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간에는 직접효과가 있었으나 가족적응성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재화 문제행동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응집성만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유의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윤혜미와 박병급(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먼저 가족 내의 정서적인 유대, 결속력을 의미하는 가족응집성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재화 문제행동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의 응집성이 청소년의 부적응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임용우(1984)연구와 낮은 가족응집성은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김윤희(1989)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민하영(1991)은 가족의 낮은 응집력이 높은 청소년 비행과 관련 있는 것은 가족원간의 소원함으로 인해 생기는 정보부족으로 청소년기 자녀의 이탈가능성 및 현실화된 비행을 초기에 규제하기 못하기 때문이며, 가족원간의 낮은 정서적 유대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소외감을 비행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보상받으려고 함으로써 비행발달을 가속화 시켰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가족응집성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매개로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응집성이 가족갈등과 우울을 매개로 비행에 간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김영희와 안상미(2008)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즉, 아동이 가족 내에서 안정감과 신뢰감을 느끼지 못하면 우울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정도가 높아져 비행과 같은 외부적 공격성향을 가진 외현화 문제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가족응집성, 가족원간의 정서적인 유대감과 결속력이 가족 기능을 진단하는 주요요인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아동의 문제가 아닌 우리 가족의 문제로 보고 가족원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부모교육을 통하여 부모들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대한 인식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아동들은 자신의 기분이 우울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호소하기 보다는 우울한 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해 비행과 같은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하게 되며(Carlson, 1980; Conger & Peterson, 1984). 이러한 외현화 문제행동은 아동의 죄책감을 자극하여 우울한 감정을 악화시키고 또 다시 비행이나 공격성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의 악순환을 겪게 한다(Marriage et al., 1986). 따라서 가족응집성이 낮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예방과 개선을 위한 상담 개입 시,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뿐만 아니라 내재화된 정서적 문제까지도 다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보다 유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가족 상호간의 나타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가족관계에서의 역할 관계나 관계의 규칙, 권력구조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 가족적응성이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낮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가족적응성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직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내재화 문제행동을 통한 간접효과만이 나타났다. 이는 윤혜미와 박병금(2005)의 연구결과와 고현자(2000)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로써, 가족관계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경로를 연구한 고현자는 아동이 가족 내에서 안정감과 신뢰감을 느끼지 못하면 우울을 경험하는 정도가 높아져 외부적 공격성향이 비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가족적응성이 낮은 가족은 권위주의적이며 전체적인 훈육방식을 유지하며, 함께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보다는 일방적인 통제방식을 사용하고, 역할과 관계규칙을 상황에 관계없이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가족원에게 요구하는 특징이 있는데, 가족이 이러한 특징을 가진 것을 지각한 아동은 다른 집단의 아동에 비해 불안과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이 높고 민하영(1992)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의 개인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발달적 요구를 충분히 받아들여주지 못함으로써 내적 불만을 가중시키고 가중된 내적 불만이 외현화 문제행동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게 된다는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이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전환하는 시기인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이 시기의 아동은 자신을 고유한 존재로 인식하며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간다. 이 때 부모가 아동에게 정서적 심리적 영역에서

과도하게 통제하게 되면 아동은 독립적인 자아를 인식함에 방해가 되며, 자신의 능력에 대해 왜곡된 평가를 함(정운주, 2004)으로써 우울과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재화 문제행동을 직접 호소하기 보다는 기분이 우울할 때 우울한 감정을 해소시키기 위해 공격성이나 비행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가 나타나는 것(김영희 · 안상미, 2008; Carlson, 1980; Conger & Peterson, 1984)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부모가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인 부분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통제하려는 것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경험적 자료를 통해 통계적 검증을 한 결과 직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내재화 문제 행동이 심각할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이 더 심각해진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 우울증 환자의 20-30%가 문제행동을 보이며, 청소년의 공격적 행위, 반항적 행위, 비행 등 외현화된 문제들의 기저에는 우울증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Chiles et al., 1980; Craighead, 1991)와, 우울은 남녀 청소년들의 비행을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이라는 광금주 등(1993)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불안은 비행이나 흡연 등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박영희(2001)의 연구결과와 장동산 등(1985)이 불안 수준만으로 비행 여부를 변별하는 설명력이 66.4%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로 내재화 문제 행동이 높아질수록 여러 가지 외현화 문제행동이 파생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 각 변인을 독립적으로 이해하기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해 연구해야한다는 선행연구(신현숙 등, 2004; Angold et al., 1999)를 지지해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행동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 효과 뿐만 아니라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이 외현화 문제행동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영미와 민하영(2004), 옥경희 등(2002)의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하위요인인 우울은 부정적 · 반항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학업성적도 낮고 또래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우울한 아동일수록 공격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학교적응이 더 어렵다는 장신재와 양희원(2007)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준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내재화 문제행동과 학교적응간의 관계에서 외현화 문제행동의 매개효과는 아동기에 나타나는 외현화된 행동문제의 기저에 가면성 우울(masked depression)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Chiles et al., 1980), 아동기와 청소년기 우울은

품행장애, 적대적 반항장애와 같은 파탄적 문제행동과 공존하는 경우가 빈번하다(Angold et al., 1999; Kovacs et al., 1988)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아동은 성인들과 다르게 자신이 위축되거나 불안할 때 자신의 감정이나 불편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신체적 호소나 행동으로 표현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보고한 강경미(1994)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나 교사가 아동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외현화 문제행동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아동이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학교적응 향상을 돕기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직접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개인변인으로는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을 환경 변인으로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을 설정하여 연구하였는데, 이 모델만으로 학교적응 전체를 설명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개인변인과 환경 변인을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족적응성이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연구모형 검증과정에서 기각되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가족적응성이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다시 한 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최종모델 이외에 이론에 의해 설정될 수 있는 모델을 찾아 본 연구의 최종모델과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원만한 학교적응 및 건전한 성장에 대한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의 중요성은 잘 알려진 바이고, 이는 본 연구에서도 재차 확인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가족기능 증진을 위한 다양한 가족단위의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해야 하며, 그 수행을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경미(1994). 소아기 우울증-소아기 우울증의 개관과 발달학적 측면. *소아청소년정신의학*, 5(1), 3-11.
- 강명희(2000).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 아동, 교사 평가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경은(2002). 빈곤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현자(2000).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 및 가족관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우울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금주 · 문은영(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자아 존중감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6(2), 29-43.
- 곽수관(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1), 1-26.
- 구자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희(1997). 초등학교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유형과 자아개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수미(2000). 아동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또래 수용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순(2001). 가정환경변인이 초등학교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 · 안상미(2008).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 *청소년학연구*, 15(2), 1-31.
- 김윤희(1990). 부부관계, 부모-자녀의사소통, 가족기능과 청소년자녀 비행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인경(2010). 초등학교생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호(2006). 초등학교생의 가족체계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 성숙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주연(1997). 가족기능에 따른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숙영(1998). 중학생의 학교적응, 학업성취, 정서 및 문제행동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수백(2003).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방법의 실제. 서울: 학지사.
- _____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문은식 · 김충희(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219-241.
- 문은정(2001).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과 지각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1992).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3(1), 112-124.
- 민하영 · 권기남(2004).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 *아동학회지*, 25(2), 81-92.
- 박미선(2007). 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강지훈(2005). 남·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1)**, 1-14.
- 박영희(2001). 흡연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불안 및 우울 : 대전 지역 실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조(2001). 중학생의 우울성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주(2001).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 부모, 친구, 교사관계를 중심으로. 춘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혜정·황혜정(2006).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및 자아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3)**, 1-27.
- 성민선·이상오·정무성·정은(1998).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사업 실천모델 연구, 학교사회사업, 창간호.
- 성영혜(1992). 부모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희준(1987). 고등학생의 우울성향과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미원(1999). 초등학생의 자아개념 및 불안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연경(200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체계 및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우울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이경성·이혜경·신경수(2004). 비행 청소년의 생활 적응문제에서 우울/불안 및 공격성의 합병 효과와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491-510.
- 안영복(1984). 적응 및 부적응 행동의 특성과 관계 변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경자·하은혜·이혜련·홍강의(2001).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K-YSR). 서울: 휴노컨설팅.
- 옥경희·김미혜·천희영(2002). 조절력과 부정적 정서 및 문제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61-68.
- 윤찬정(1994). 가족의 기능성과 개인의 인성 특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혜미·박병금(2005).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관련 요인-생태체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8**, 133-164.
- 이경남(2006). 아동의 개인, 가족 변인 및 학교적응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5(1)**, 31-44.
- 이규미(2005).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83-398
- 이규미·김명식(2008). 중학생 학교적응 척도의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한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5(1)**, 27-40.
- 이미라(2000).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미·민하영(2004).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학교적응에 따른 아동의 우울성향. 대한가정학회지, **42(4)**, 1-10.
- 이정윤·이경아(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61-276.
- 임경희(1998). 가족체계의 특성과 아동의 성격차원 및 스트레스 대처양식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용우(1984). 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행동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동산·이길홍·민병근(1985). 한국청소년의 불안 및 우울 성향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중앙의대지, **10(4)**, 405-422.
- 장신재·양혜원(2007). 부모-자녀관계, 우울 및 공격성과 학교 적응 간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8(2)**, 5-29.
- 전귀연(199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가족 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귀연·최보가(1995).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99-113.
- 정윤주(2004).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 문제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아동의 행동 문제. 아동학회지, **25(6)**, 205-223.
- 정현희(2003). 중학교 진학 후의 심리적 부적응을 예측하는 요인. 청소년 상담연구, **11(2)**, 36-26.
- 조종현(1980). 고교생의 학교생활 적응문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차유림(2000). 아동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지은·신용주(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199-210
- 함종한(1984). 청소년-교육심리학적 접근. 서울: 상조사.
- 허주연(2005).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가족체계가 아동의 친구 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강의·홍경자(1986). 국민학교 아동의 행동문제 연구(II). 서울의대 정신의학, **11(1)**, 39-47.

- 홍현화(1997).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과 아동의 학교적응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매일신문(2010). 학교 부적응 학생 도울 수 있는 체제 마련 시급하다. 2010. 10. 07.
- 제주일보(2011). 열 중 한 명은 '스스로 불행', '학교 싫증' 인식. 2011. 2. 23.
- Achenbach, T. M.(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ngold, A., Costello, E. J., and Erkanli, A.(1999). Comorbidit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0(1), 57-87.
- Carlson, G. A.(1980). Unmasking maske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of psychiatry*. 137, 445-449.
- Chiles, J. A., Miller, M. L., and Cox, G. B.(1980). Depression in an adolescent delinquent population. *Archives general psychiatry*, 37, 1179-1184.
- Conger, J. J. & Paterson, A. C.(1984). *Adolescent and youth*. N.Y.. Haper & Row Publishers.
- Craighead, W. E.(1991). Cognitive factors and classification issues in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2), 311-326.
- Handel, G.(1965). Psychological study of whole families. *Psychological bulletin*, 63, 9-41.
- Kovacs, M., Paulauskas, S., Gatsonis, C., and Richards, C.(1988). Depressive disorders in childhood III. A longitudinal study of comorbidity with and risk for conduct disorde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5, 205-217.
- Herschi, T.(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rriage, K., Fine, S., Moretti, M., & Haley, G.(1986).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conduct disorde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merican Academy children and adolescents Psychiatry*, 25, 187-254
- Olson, D. H., Porter, J., & Lavee, Y.(1985). *FACESIII.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Olson, D. H., Russel, C. S., & Sprenkle, D. H.(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IV.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Rex B. Kline(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Guilford Press.
- Stewart, E., Makenry, P., Redd, N., & Gavazzi, S.(1994). Family processes as mediators of depressive symp-

tomatology among rural adolescents. *Family relations*, 43, 38-45.

- 접수일 : 2011년 05월 06일
- 심사일 : 2011년 06월 09일
- 게재확정일 : 2011년 08월 12일